

영업 기술팀 방문 레포트

이익을 내는 생산 라인이란

저희들 Pro-face의 영업 기술팀은, 항상 사용자 여러분의 현장을 방문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저희 영업 기술팀이 실제 사용자 여러분의 현장에서 듣고 본 고민, 개선 요청 등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제품 트렌드의 움직임은 쫓기 버거울 정도로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에 구별없이 모든 사용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현장 방문시의 짧은 대화에서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빅 데이터의 활용을 예로 들면 이전까지는 필요한 정보가, 제품의 "검사 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그쳤습니다만, 현재는 제조 조건 까지도 하나로 묶어 파악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빅 데이터"라는 어휘는, 본래 시판 데이터 베이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처리 불가능할 정도의 정보량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 라인" 혹은 "설비의 모듈화". 이러한 키워드도 모두, 시장의 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한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설비의 모듈화**"에 대한 고객사의 과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품 트렌드 (=시장의 요구)의 변화는, "저렴하면 팔린다"는 개념에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스피드와 직결되는 것이, 고객 여러분의 생산 라인이며,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통해 "설비의 모듈화"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의 모듈화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의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변화” 즉 라인의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기쉽게 설명하면, 만들고자 하는 “대상” 과 “생산량”에 변화가 있어도, 최소한의 노력으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라인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진행되고있어 많은 현장에서 활약중입니다.

“설비의 모듈화”는 단어 그대로, 지금까지 하나였던 설비가 모듈 구조로 분할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제어 기기에 대해서도 나뉘어져 있는 것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듈화된 설비를 교체하거나 추가하는, 혹은 없애는 것 만으로 기기적으로는 “변화”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제어 정보는 어떻게 대응하 수 있을 까요?

모듈화된 설비는, 당연히 부품이 교체된 후에도 가동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만, 현장에는 예상 밖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담당자들은 “아무리 모듈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는 설비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교체할 때마다 당연히 각종 제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수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장비를 가동시키려 할 때, 옆의 장비의 운전 준비 신호가 ON 상태가 아니라 PLC 정보는 PLC 링크 디바이스를 통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신호가 로봇과 같이 PLC 이외의 제어기기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 PLC 모니터링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로봇의 티칭 펜던트 혹은 PC의 로봇 툴을 별도로 접속시켜야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저희가 제안드린 솔루션이 바로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Pro-Server EX 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Pro-Server EX 는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로, 상기 예로 든 부분에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과제는 없었습니다.

사실 Pro-Server EX 는, 데이터 수집만을 위한 툴이 아닙니다. 디버그 툴로서도 사용이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용자의 예에서, 복수의 제어기기에 대한 정보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툴이나,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 케이블 등이 필요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별도 툴의 사용 없이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Pro-Server EX 를 통해 실현이 가능합니다.

바로 “디바이스 모니터”기능이 그 해답입니다.

“디바이스 모니터”기능은 폐사의 표시기 GP/SP 시리즈에 접속된 제어 기기의 정보를 모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폐사의 표시기는, 최대 4 종류의 기기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접속 기기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PLC 의 디바이스 정보 뿐만 아니라, 로봇, 온도 조절계, 인버터 등 다양한 기기의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 모니터링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설정이 단 3 스텝만으로 가능합니다.

- ① Pro-Server EX 시작
- ② 서버 리스트 자동 검색, 추가
- ③ 디바이스 어드레스 지정

어드레스를 사전에 등록하거나, 설정 데이터를 표시기에 전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3 스텝 만으로, 다양한 제어 기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신의 SP5000 시리즈의 Open Box 를 사용하는 경우,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의 동작이 가능하기때문에, Pro-Server EX 를 터치패널 표시기 상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HMI 에서 직접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PC 없이도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공개될 예정인 Pro-face 의 신 기기는 Pro-Server EX 의 도입이 더욱 간단해질 전망이므로 여러분의 IoT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Pro-Server EX 에 흥미를 갖게 되셨나요?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라는 이미지가 강한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만, 사용 방법을 바꾸면 더욱 편리한 도구로써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Pro-face 의 영업 기술팀은, 회사 안팎의 팀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Pro-face Korea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